

2 뉴스클리핑

1. 국내외 반도체산업 주요 뉴스

▶ 정부, '차세대 전력반도체' 키운다...6~8인치 파운드리 인프라 확보 추진

원문보기

정부가 디지털그린 뉴딜의 핵심 부품으로 주목 받는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키운다. 현재의 실리콘 기반 반도체 대비 전력 효율이 뛰어난 3대 신소재 반도체 개발하고 '반도체 소자·모듈·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밸류체인을 강화한다. 6~8인치 기반 파운드리 인프라 확보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 "3월 수출 '역대 최고' 583억달러...전품목 선전 5개월 연속↑

원문보기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첫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5개월 연속 수출액 증가세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냈던 품목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부침을 겪었던 기계, 석유, 섬유 등 중간재 품목의 수출 회복이 힘을 보탠 결과로 풀이된다.

▶ 불붙은 반도체 패권전쟁... 전세계 설비투자 14% 늘었다

원문보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트를 인용해 올해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액이 1294억달러(약 146조7137억원)로 지난해 투자액(1131억달러)보다 약 14%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투자액은 2017년 956억달러에서 오름세를 유지하다 2019년 잠시 주춤한 뒤 다시 증가하고 있다.

▶ '반도체 대란'으로 바뀔 자동차산업 지형 5가지

원문보기

이번 '반도체 대란'으로 바뀔 자동차산업 지형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산업 공급망관리(SCM·Supply Chain Management)의 핵심이 기계에서 반도체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 2.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시험무대 3. 차량용 반도체의 적정재고 기준이 달라지고, 재고 늘어남에 따라 전체 비용 상승 4. 자동차회사와 반도체회사의 제휴 확대되고, 차량용 반도체의 공용화 더 빨리 추진 등

▶ 美 마이크론, 日 키옥시아 인수 검토...낸드 시장 지형 변화 주목

원문보기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디지털이 일본 키옥시아 인수를 검토한다. 마이크론과 웨스턴디지털은 세계 D램 및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중상위권 메모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과 웨스턴디지털은 키옥시아 인수를 추진 중이다. 키옥시아 기업 가치는 300억달러(약 34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 차세대 메모리, FGT로 저장 안정성 10배 높인다

원문보기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메모리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철과 게르마늄, 텔루륨으로 이뤄진 반데르발스 자성체(FGT)의 안정성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이 소재가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연구개발(R&D)중인 스텍 메모리(STT-M램)의 소재보다도 정보저장 안정성이 10배 이상 뛰어나다고 설명했다.